Northern Arizona University 체험수기

영어교육과 이하림

2022년 가을 학기에 Northern Arizona University (NAU)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다. 1학기 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기를 작성해 보았다.

-NAU까지 가는 법

NAU는 애리조나 주에 '플래그스태프'라는 도시에 있다. 인천에서 플래그스태프까지 직항은 없다. 적어도 2번은 경유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인천에서 출발해 댈러스와 피닉스를 경유하여 플래그스태프에 도착하였다. 플래그스태프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학교 무료 셔틀을 이용했다. 사전에 이메일로 항공편 정보를 학교 측에 보내면 학교에서 그 시간에 맞춰 플래그스태프 공항에 픽업하러 온다.

피닉스 공항에서 플래그스태프로 비행기 외 다른 수단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 피곤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플래그스태프 공항까지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 학교 셔틀을 타는 것을 권장한다.

-기숙사

NAU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하면 미국 도착 전 해야 할 일에 관련해 이메일이 온다. 그중 하나가 기숙사 신청이다. 기숙사 신청은 선착순인데 금방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NAU housin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기숙사별로 어떤 구조이고 무슨 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합격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고 합격하자마자 바로 기숙사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룸메이트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룸메이트의 자기소개와 성향을 읽어볼 수 있다. 룸메이트가 정해지면 미국에 가기 전에 자기소개에 적혀있는 이메일을 통해 미리 룸메이트와 연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제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Campus Heights)도 있는데 나는 현지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어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기숙사 중 하나인 Calderon hall에서 지냈다. 이 기숙사는 suite-style로 2인 1실이고 옆방의 친구들과 하나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다. 주방은 공용으로 층마다 2개씩 있다. 그리고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편했고, 내가 듣는 수업의 강의실과 가까웠다. 본인의 취향과 강의실 등을 고려해 기숙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가을학기만 파견되었다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학교 시스템상 기숙사를 선택할 때 가을학기만을 선택할 수 없고, 봄학기까지 포함된 Academic year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아보고 학교를 떠나기 전에 License Agreement Release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봄학기 기숙사 금액 전액을 내지 않고 20%만 낼 수 있다. 참고로 봄학기 금액의 20%는 낼 수밖에 없게 학교 시스템이 되어있다.

-밀플랜

학교에 도착하기 전까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밀플랜이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밀플랜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다. 학교에 처음 도착하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무료로 한 끼 먹을 수 있는 쿠폰 2개를 받게 된다. 그 쿠폰을 사용해 한번 먹어보고, 본인이 얼마나 자주 학교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 종류의 밀플랜 중 하나를 고르면 될 것이다.

캠퍼스에 학교 카페테리아는 2개가 있다. Hot spot과 Dub이다. 나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Dub을 더 선호한다. 카페테리아 외에도 Chick-Fil-A, Pizza Hut과 같은 다른 음식점들이 캠퍼스에 있다. 이 음식점들도 밀플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신청한 밀플랜은 가장 저렴한 것인데, 바로 '한 학기에 50끼+$600 Dining dollars'이다. Dining dollars는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모든 학교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를 사용하면 Tax가 음식에 붙지 않는다. 학교 음식점에서 dining dollars를 사용하지 않고, 밀플랜의 한 끼를 transfer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한된다. 나는 주말엔 여행을 하면 학교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 이 밀플랜으로 한 학기 동안 충분했다.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밀플랜에서 주의할 점은 이것도 Academic year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를 떠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봄학기 밀플랜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밀플랜은 기숙사와 달리 봄학기 금액을 전혀 내지 않는다.

-수업

합격통지서를 받고 NAU 측 교환학생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수강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한국처럼 일 처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 답장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수강 인원이 다 차 원하는 과목을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팁은 수강신청을 할 때 최대한 많은 강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 수업이 많이 달라 신청한 강좌를 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는 전공 2과목, 교양 3과목 총 13학점을 최종 신청했다. 운동 과목 하나 정도는 듣는 것을 추천한다. Pass/Fail이고 1학점으로 과제도 별로 없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평가는 모두 절대평가이다. 과목 당 최종 점수가 90%가 넘으면 A이다. 충남대에서 성적을 잘 받아왔으면 열심히만 하면 A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교와 가장 큰 차이는 과제의 양이다. 미국 대학교는 시험보다 과제에 초점을 두어 과제의 양 때문에 처음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2주 정도 열심히 하면 적응을 할 것이다. 과제가 많은 대신 시험은 부담이 없다. 대부분 오픈북이고,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다.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시험은 매우 쉬울 것이다.

한국 대학교와 또 다른 점은 교수님이다. NAU의 교수님은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학생들이 강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질문이 있을 때 부담 없이 교수님께 찾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Dr. Last name'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first name으로 자신을 부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많다. 내가 들었던 수업은 모두 교수님께서 그

냥 자신의 first name을 부르라고 하셨다. 이 점이 교수님을 편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요인 같기도 하다.

-학교 시설

내가 자주 이용한 학교 시설은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Health and Learning Center이다. 2층에 gym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구도 많고, 달릴 수 있는 트랙도 있다. 이 외에도 농구장, 락클라이밍 장이 있다. 오후에 가면 많이 붐비기 때문에 오전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시설은 Cline Library이다. 캠퍼스 중앙에 위치하며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외에도 그룹 스터디룸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많다. 도서관 컴퓨터로 프린트도 할 수 있는데 학생회비에 프린트 100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주변 시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마트가 3개 있다. Target, Sprouts Farmers Market, Walmart이다. Target과 Walmart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라고 보면 되고, Sprouts는 식료품만 파는데 유기농이 많고,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저렴하다. Target과 Sprouts는 학교에서 도보 거리에 있지만, Walmart는 약간 걷기엔 멀다. 그래서 10번 버스를 이용하면 좋다. 학교에서 Walmart까지 가고, 학생회비에 무료로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버스를 탈 때 학생증을 보여주면 된다.

-날씨 및 고도

8월에서 12월까지 플래그스태프의 날씨를 경험해 보았다. 여름에 온도는 크게 높지 않았지만, 햇볕이 매우 뜨거워서 덥게 느꼈던 것 같다. 여름에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는 눈과 피부의 건강을 위해 필수이다. 나는 처음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등산을 하다가 목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 가을은 한국 날씨와 비슷했고, 단풍도 볼 수 있다. 참고로 사막인 애리조나 주에서 플래그스태프는 나무도 많고, 단풍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1월부터 겨울이 시작되었다.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며, 눈이 쌓인 것도 11월 초에 볼 수 있었다. 이는 플래그스태프가 고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도가 2105 미터로 굉장히 높다. 학교 측에서도 오리엔테이션에서 높은 고도로 인해 고산병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다. 내 주변을 보면 유럽 친구들은 고도 때문에 어지럽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아시아 친구들은 고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동아리

학교에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다. 오리엔테이션 주에 club fair를 하는데 이때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볼 수 있고, 가입도 할 수 있다. 나는 hiking club에 가입을 하여 활동하였다. 이 동아리가 국제학생에게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미국에서 멋진 자연에 가는 것이 제한되는데 이 동아리에서는 차를 얻어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 있는 현지 학생을

중심으로 동아리는 운영되는데, 기름값만 나눠 내면 차를 같이 타고 좋은 곳에 많이 갈 수 있다. 하이킹은 주말에 가며, 페이스북 페이지에 갈 장소와 준비물을 며칠 전에 공지해 준다. 인원수 제한이 있어 가고 싶은 곳이면 당일에 집합 장소에 빨리 모이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겨울에는 이 동아리가 활동하지 않는 것 같다.

-여행

애리조나 주는 자연이 주 관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차가 있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면 여행을 갈 때 편하다. 학기 중에 갈만한 곳은 다음과 같다.

*Downtown: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다. 크지는 않고, 식당과 가게들이 많다. 한 번씩 주말에 친구들이랑 가볼 만하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며놔서 가면 좋다.
*Lowell Observatory: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천문대이다. 학교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서 가기 좋다. 플래그스태프를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Humphreys Peak: 애리조나 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초보자에게는 왕복 8시간이 걸린다. 플래그스태프에 왔으면 성취감으로 한 번 가볼 만하다. 겨울에는 눈이 와 미끄러울 수 있어 안 가는 것이 좋다. 또한 등산화, 먹을 것, 3L 이상의 물은 필수이다.
*Buffalo Park: 학교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공원이 아름다워 산책하기 좋다.
*Meteor Crater: 가려면 차가 필요할 것이다. 운석 분화구인데 미국에서 가장 보존을 잘해 놓은 곳이라고 한다. 분화구가 매우 크고, 박물관과 체험관도 안에 있어 가볼 만하다.
*Grand Canyon National Park: NAU에 교환학생 왔으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이다.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학교에서도 하루 잡아서 선착순으로 돈을 낸 학생들을 보내준다. 트레일이 많아 갈 수 있다면 여러 번 가도 좋다. 참고로 가을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 시기이다.
*Sedona: 붉은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이색적이고,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여러 번 가도 좋다.
*Pumkin patch: 할로윈 시기에 가고, 플래그스태프에 한 군데 있을 것이다. 잘 꾸며 놓고 할 수 있는 놀이도 많아 가면 할로윈을 제대로 보낼 수 있다. 잘 꾸며 놓았고, 호박을 사서 carving도 할 수 있다.
*Phoenix, Tempe, Scottsdale: 모두 도시인데 개인적으로 도시는 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기타 장소: Walnut Canyon, Montezuma Castle, Tuzigoot
*가보고 싶었던 장소: Antelope Canyon, Horseshoe Bend

연휴에는 다른 주도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보통 버스나 기차를 타고 LA이나 Las Vegas에 많이 간다. 추수감사절에는 수업이 취소도 많이 되어 연휴가 매우 길어 캐나다도 갔다 올 수 있다. 비행기를 탄다면 피닉스 공항에서 타는 것이 플래그스태프 공항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피닉스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Greyhound, Flixbus, Groome Transportation 3가지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좋다.

돌이켜 보면 교환학생을 간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다. 좋은 곳들도 많이 갔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며 성장을 많이 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 있다면 NAU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수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